

미래인 청소년 걸작선

힌트 하늘을 나는 교실

나토리 사와코 지음 · 이미향 옮김



독후
활동지

◆책 소개

노아고등학교는 체육 대회를 앞두고 모두가 분주하다. 우연히 도서관방을 맡게 된 모모세는 도서관 수납장 밑에서 『하늘을 나는 교실』을 발견하게 된다. 알고 보니 이 책은 10년 전 누군가 대출한 기록이 마지막이었다. 거기에 책장 사이에 체육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토요일의 댄스’ 내용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쪽지 하나가 발견된다. 모모세는 쪽지의 문구가 암호처럼 느껴져 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사건은 점점 꼬여만 가는데……. 과연 모모세는 암호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독서 목표

- ① 사유하는 독서를 배우게 된다.
- ② 개인의 자유와 전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③ 맞춤형 독후활동지로 소설 속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토리 사와코 장편소설
『힌트, 하늘을 나는 교실』

#학교 #도서관 #존중 #공동체 #체육대회

차례

1. 책 표지에 생각을 더하다
2. 제목과 해시태그로 미리 보는 소설
3. 수수께끼의 열쇠
4. 나라 군의 비밀
5. 정답은 바로 너!
6. O 아니면 X 정답은 하나!
7. 짧게 묻고 답해요
8. 전통을 말하다
9. 내가 만드는 '토탄'
10. 책의 진짜 주인?
11. 책 사다리 게임
12. 책을 덮으며

3. 수수께끼의 열쇠

방주는 필요 없어.

다 큰 개구쟁이들이 토단을 부숴 버려!

처음 봤을 때 ‘혹시 암호?’ 하는 마음에 피가 끓어올랐던 건 조금 전 사쿠타로와 설록 홈스 얘기를 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이 무얼 의미하는 건지는 몰라도 ‘토단을 부숴 버려’라는 다소 난폭하면서도 직설적인 말이 토단은 물론 체육 대회에 전혀 참가할 수 없는 나의 울분을 풀어 주었다. 주눅 들기만 했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핀 것이었다.

“이게 암호라면 풀어 보고 싶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지 사쿠타로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뒤돌아보니 창가에서 빗자루를 든 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조금 전 사쿠타로에게서 느낀 세심한 관찰력을 떠올리고는 도움을 구했다. “이거, 이거.”라며 쪽지를 팔랑거리면서 가까이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단번에 달려온 사쿠타로는 내가 내민 쪽지를 손에 들고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지나치게 꼼꼼히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그가 고개를 들었다. 캄캄캄 소리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크게 움직이던 동그란 눈이 나를 향했다. _p.29

Q1 내가 모모세라면 『하늘을 나는 교실』의 책을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을까요?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나라 군의 비밀

“여장은 싫어?”

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나라 군의 시선이 흔들렸다. 미이케 마키오라는 선배 이야기를 할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일 만큼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싫죠. 평소에 여자로 자주 오해도 받았어요. 여성복을 입을 수 있는 체격인 데다 체육 대회 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라 군은 말꼬리를 흐리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라고 불쑥 내뱉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며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화장품도 빌리며 준비했는데, 오늘 점심시간 때 반 아이들과 처음으로 준비한 의상을 입고 막상 춤추려고 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영 수업 때 사용한 목욕 수건으로 몸을 둘둘 말고 교실에서 도망친 거예요.”

(사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들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반 분위기가 나빠지면 그건 또 그것대로 괴로운 일이잖아요.”

나는 그렇구나, 하고 중얼거리고는 침묵했다. 여장이 싫다는 나라 군이, 남자가 여장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하는 반 아이들처럼 존중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_p.58

Q1

나라 군은 여장하기 싫어 친구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 계기로 토덴의 전통에 변화가 오고, 자신의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라 군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5. 정답은 바로 너!

나라 군은 책을 들어 올려 『현관의 도어 스코프 구멍에서 비추어지는 빛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을 터이다』라는 긴 제목을 보여 주었다.

“네 마음을 대변해 주는 책인가?”

가즈미 선생님은 어깨를 움츠리며 미소 지었다.

“나도 시가집 읽는 걸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긴박했던 상황이 순간 평화로운 독서 이야기로 넘어가자, 경계심을 보이던 나라 군조차 “히.” 하고 한숨을 쉬었다. 가즈미 선생님은 평소처럼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 갔다.

“시를 읽으면, 우리가 늘 보던 좁은 풍경을 고배울의 쌍안경으로 다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니?”

알쏭달쏭 미묘한 가즈미 선생님의 말에 나라 군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_p.146

Q1 소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 ① 『힌트, 하늘을 나는 교실』
- ② 『현관의 도어 스코프 구멍에서 비추어지는 빛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을 터이다』
- ③ 『문화제 어클락』
- ④ 『화성 이야기』
- ⑤ 『꼴사나워도 괜찮습니다』

방주는 필요 없어

다 큰 개구쟁이들아, 토덴을 부숩 버려!

‘불행한 일을 당해도 피하지 마. 일이 잘 안 풀려도 놀라지 마. 운이 나빠도 낙담하지 마. 힘을 내.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겨 낼 만큼 강해져야 해.’

부술 수 없다면 우리들의 방주를 만들면 돼 도서관의 방주에 모두를 태우고 살아가자!

다 큰 개구쟁이들인 33기 도서 위원 _p.108

Q2 ‘다 큰 개구쟁이’가 아닌 사람은?

- ① 미이케 마키오: 도서 검색기를 만들었다.
- ② 군지 가즈미: 모모세의 담임 선생님
- ③ 사사노 고: 『하늘을 나는 교실』의 책 주인
- ④ 가도다 메이: 가즈미 선생님의 아내
- ⑤ 나토리 사와코: 『힌트, 하늘을 나는 교실』의 작가!

6. ○ 아니면 ✕ 정답은 하나!

“고쿠타로?”

“4반 도서 위원 사쿠타로 말이야. 개는 도서관에서 도서 위원으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혹시나 네가 휘둘리지는 않았나 걱정돼서.”

사치에게서는 조금의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고는 말했다.

“괜찮아. 도서 당번이 해야 할 일도 친절하게 알려 줬잖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랬구나. 그럼 됐어.”

사치는 뭔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을 이어 가려 했다. 때마침 종소리가 울렸다. 사치의 입이 닫혔다. 그대로 자리로 돌아가려는 사치의 등 뒤에 대고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근데 왜 고쿠타로라고 불러?”

사치는 뒤돌아보더니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떡였다.

“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은 애한테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지치지 않는 ‘고백의 사쿠타로’란 뜻에서 고쿠타로.” _p.42

Q1 노아고 도서관 검색 시스템 ‘책 소물리에’를 만든 사람은 사쿠타로다? (○ / ✕)

Q2 모모세가 발견한 책 이름은 『하늘을 나는 교실』이다. (○ / ✕)

Q3 ‘다 큰 개구쟁이’는 세 명이다? (○ / ✕)

Q4 도서관에 목욕 가운을 입고 들어 온 사람은 나라 군이다. (○ / ✕)

Q5 사쿠타로의 별명은 고쿠타로다. (○ / ✕)

7. 짧게 묻고 답해요

“누나가 자기 몸에 대해 늘 혼자서만 품고 있던 위화감이라든지 그에 따른 힘든 생활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당한 여성이 되기 위해 가져야 했던 엄청난 열정과 각오는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봤어요. 저는 누나를 이해했고, 그래서 존중하고 싶어요. 이런 이유로 저는 단지 주변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여장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 하기 싫어요. 제가 맥주 판매원 의상을 입지 않는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저의 상처와는 상관없고, 애당초 지식도 품위도 없는 인간들의 조롱 따위는 상처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단번에 이야기를 마친 나라 군은 꾸벅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에모리였다. “개인적인 사정을 털어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 학생이 그 의상으로 토던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아직은 긴장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어조는 온화했다. 경우에 따라 심한 말을 내뱉거나 멋대로 폭주하기도 하지만, 에모리는 독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었다. _p.204

Q1 모모세가 배구 동아리를 관둔 이유는?

Q2 노아의 방주 뜻은 무슨 뜻일까요? Hint p.194

Q3 나라 군은 왜 여장하기를 싫어했을까요?

8. 전통을 말하다

“잠깐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토덴은 이미 완성돼 있어. 다른 의상을 입은 학생이 섞이면 눈에 떨 거야. 애당초 반에서 정한 주제와 어울리지 않게 된다고. 어떻게 봐도 이상하잖아?”

에모리는 이마에 손을 얹으며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반들거렸다.

학생회장이 타이르듯 말했다.

“물론 얼마 안 남은 올해 토덴을 근본부터 바꾸는 건 무리겠죠. 하지만 이틀 동안 의상을 조금 손보는 정도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전통을 망치는 거잖아. 노아고 토덴은 말이야, 학교가 창립되자마자 제 1회 체육 대회에서 바로 첫선을 보인 종목이라고. 당시 학생회장이 ‘새로운 학교의 상징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며 체실을 조직했어. 그 체실과 학생회가 힘을 합쳐 단체 경기라고 불릴 만한 종목을 만들어 낸 거잖아. 그렇게 학생들이 주가 되어 만든 규칙을, 역대 체실이 40년 이상 지켜 온 규칙을, 어기는 게 말이…….” _p.151

Q1

체실 위원회는 전해져 내려오는 학교의 토덴 전통을 지키고자 합니다.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변화가 필요한지 이유를 적어 보세요.

9. 내가 만드는 ‘토댄’

- 토댄을 포함한 학생들의 기존 경기 개입이나 변경은 불가
- 개폐회식 시간 변경 불가
- 준비나 도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한정

에모리는 화이트보드에 쓰인 조건을 보자마자 바로 “이 조건들에 맞는 경기는 존재하지 않아.”라며 안도한 듯 말했다. 그 말에 체실 의원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했고, 학생회장은 걱정스러운 듯 인상을 썼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 전화 카메라로 화이트보드를 촬영했다.

“어때?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 해도 계속 생각해 볼 텐가?”

다니마치 선생님의 물음에 “네.” 하고 대답하는 나와 가즈미 선생님과 나라 군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 귀에는 33기 도서 위원인 다 큰 개구쟁이들의 목소리도 여기에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_p.209

“토댄을 포함한 학생들의 기존 경기…….”

나는 중얼거렸다. 간결한 문장으로 된 다른 조건과는 달리, 읽다 보니 이것만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왜일까? ‘기존 경기 개입이나 변경은 불가’라고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펄쩍 마음에 짝이는 점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쿠타로가 들고 있던 일정표를 낚아챘다.

“어, 뭐야, 모모세?”

“미안. 잠깐 기다려 봐.”

일정표에 적힌 순서대로 손가락을 짚어 내려갔다. 내 손가락은 토댄의 다음 순서 위에서 멈췄다.

“여기 있다, 허점.”

“뭐?”

내 손가락 끝을 사쿠타로와 나라 군, 가즈미 선생님이 앞다투어 들여다보았다. _p.212

Q1

내가 모모세나 사쿠타로였다면 ‘토댄’을 어떻게 계획했을 것 같나요?

10. 책의 진짜 주인?

‘빨리 와 줘.’

나는 기도했다.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좁은 틈으로 등부터 몸을 비틀어 넣듯이 들어온 사람은 예상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

내가 이름을 부르자, ○○○○는 어깨를 움찔하더니 카운터 안에 있는 나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깜짝이야. 모모세가 왜 여기 있어? 교무실에 열쇠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책이 신경 쓰여서.”

『하늘을 나는 교실』을 도서관에 놓고 와 버렸어.

어제 나는 ○○○○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의 답변은 ‘휴일엔 도서관도 문을 닫으니까 주중에 찾으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였다.

(사이)

“왜 그래?”

“사실은 이걸 가지러 온 거지? 가져가도 돼. 노아고 데이터상에는 이미 한 권의 소장 도서가 있고, 이부키 씨랑 가즈미 선생님하고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거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 ○○○○를 내려다보았다.

“사사노 씨가 빌린 『하늘을 나는 교실』, 이 책은 반납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_p.268

Q1

소설을 다 읽으면 책의 주인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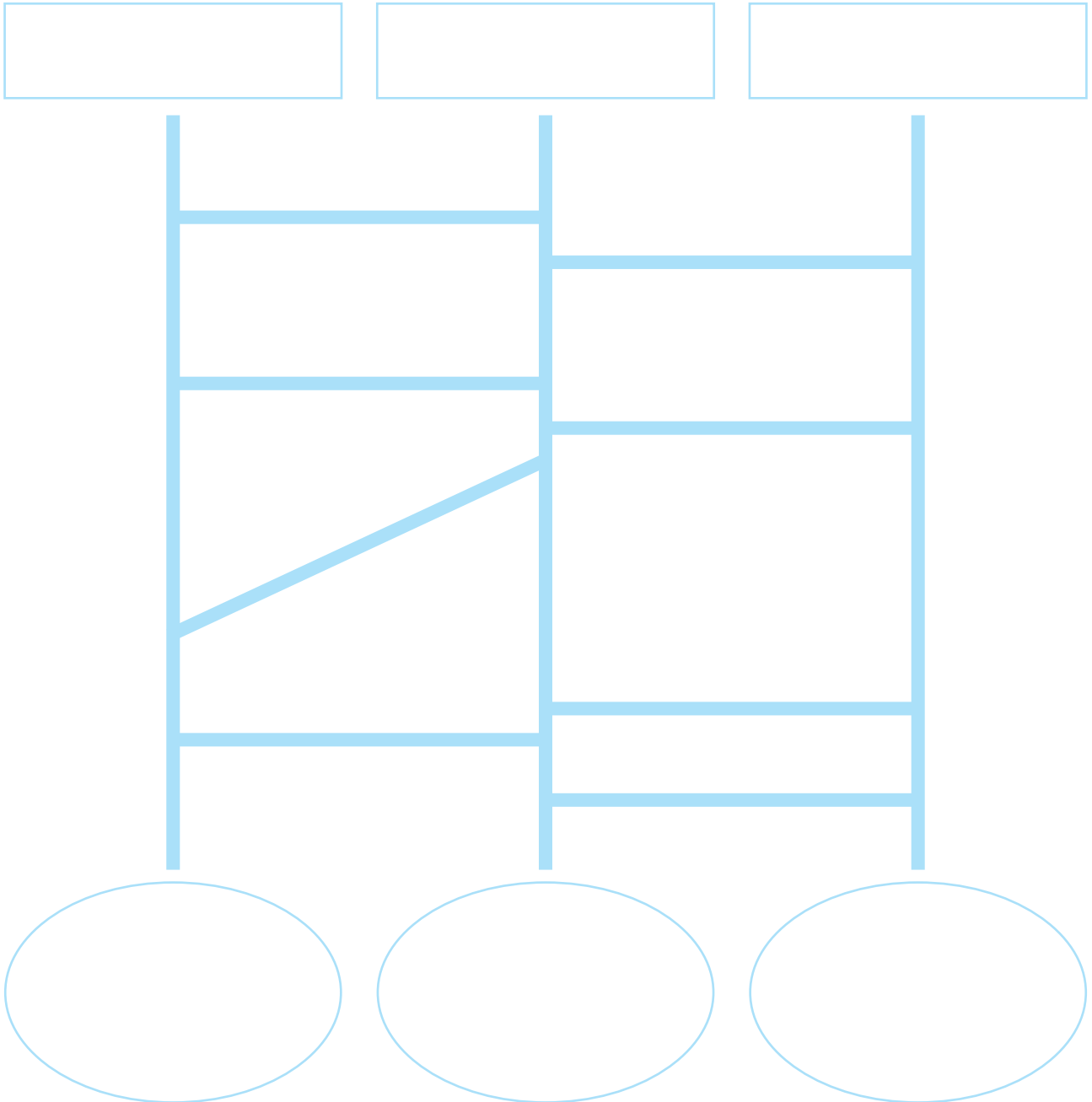
만약 내가 ○○○○라면 모모세가 『하늘을 나는 교실』 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11. 책 사다리 게임

Q1

자신이 좋아하는 책으로 사다리를 완성해 보세요.

네모 칸에는 질문을 아래 동그라미 칸에는 책 제목을 적어 주세요. 질문과 답이 이어지도록 유의하세요!



미래인 청소년 결작선

- 81 **hint, 하늘을 나는 교실** 나토리 사와코 지음 | 이미향 옮김
- 80 **플라나 농장의 휴식** 선자은 지음
- 79 **유령 아이** 손서은 지음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78 **덕롭풍** 이승민 지음 **독서평설 프리미엄 회원 필독서**
- 77 **안전가옥 코드 코먼** 지음 | 이철민 옮김
- 76 **인플루엔자 D와 빅 블랙 큐브** 제이크 버트 지음 | 채효정 옮김
- 75 **초크체리 중학교의 위험한 낙서** 고든 코먼 지음 | 김영란 옮김
- 74 **어둠의 속도**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3 **열네 살 CEO** 앤드루 노리스 지음 | 함현주 옮김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72 **미녀와 쓰레기통** 조앤 오코넬 지음 | 최지수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1 **지니어스 게임 3**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70 **핸드폰 없는 2주일** 플로리안 부센도르프 지음 | 박성원 옮김
북토큰 선정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9 **지니어스 게임 2**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68 **구름사냥꾼의 노래 2**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 67 **속제 파업** 그렉 핀커스 지음 | 채효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6 **프렌드북 유출사건** 토마스 파이벨 지음 | 최지수 옮김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5 **구름사냥꾼의 노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4 **지니어스 게임**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3 **어쩌다 대통령** 사라 카노 지음 | 나윤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2 **불량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최제니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1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존 D. 앤더슨 지음 | 윤여림 옮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0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혜선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59 **시리아에서 온 소년** 캐서린 마시 지음 | 전해영 옮김
- 58 **나쁜 학생은 없다** 고든 코먼 지음 | 성세희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7 **로봇 하트** 파드레이그 케니 지음 | 서애경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6 **달기지어 안녕** 스텐워드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5 **스페이스 보이** 닉 레이크 지음 | 이재경 옮김
- 54 **나나 대장 실종사건** 스텐워드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 53 **마틸다 효과** 엘리 어빙 지음 | 김현정 옮김
- 52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지음 | 김영아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1 **2041 달기지어 살인사건** 스텐워드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50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폴 델리저 지음 | 김영란 옮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49 **누구나 떨어진다** 제임스 프렐러 지음 | 서애경 옮김
- 48 **바다에서 보낸 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 47 **트루와 넬** G.네리 지음 | 차승은 옮김
- 45 **유령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43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토드 하삭 로위 지음 | 김영아 옮김
- 42 **나를 돌려줘** A. S. 킹 지음 | 박찬석 옮김
- 41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지음 | 이재경 옮김
- 39 **형제는 용감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 38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 안트예 스티라트 지음 | 이덕임 옮김
- 35 **쓰레기왕** 엘리자베스 레어드 지음 | 김민영 옮김
- 34 **푸른 하늘 저편**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33 **로봇 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정현정 옮김
- 30 **그래도 학교** 고든 코먼 지음 | 안지은 옮김
영 리더스 초이스 상 수상작,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29 **컨닝 X파일** 크리스틴 부처 지음 | 김영아 옮김
- 28 **피그보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캐나다 자작나무상 수상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 23 **신이라 불린 소년** 맥 로소프 지음 | 이재경 옮김
- 22 **두근두근 체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알라딘 추천 우리시대 청소년 도서
- 21 **17세** 이근미 지음 **책따세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 20 **두근두근 백화점** 알렉스 쉬어러 지음 | 김호정 옮김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 19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지음 | 김상우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도서**
- 18 **불량엄마 굴욕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 16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14 **쌍꺼풀** 안나 지음 | 김선희 옮김
- 13 **팻걸 선언** 수잔 보트 지음 | 김선희 옮김
- 12 **초콜릿 레볼루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주혜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09 **불량엄마 납치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캐나다 자작나무상 수상작
- 08 **흠으로 슬라잉**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김선희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0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이도영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독서새물결모임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